

짓지도 철거도 못하는 광주 도심 ‘장기방치건축물’ 언제까지

민주당 이명노 시의원 시정질의
옛 서진병원·주월동 요양병원 등
부도·소유권 분쟁 수십년째 방치
농성동 철골건물 올해 공사 예정
빈건물 135곳...동구 50건 가장 많아

광주에서 장기방치 건물이 줄고 있으나 수십년 도심홍물로 지목돼온 3대 건축물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3곳(서구 1곳, 남구 2곳)이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이들 3개 건물은 건물주가 건축과정에서 부도나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빠져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다.

방치건물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은 3곳은 규모가 매우 큰 데다 광주의 주요 교통로나 관문에 위치해 광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광주시 남구 옛 서진병원 건물(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2만3144.61㎡), 남구 주월동 요양병원 건물(연면적 5306.4㎡), 서구 농성동 서구청 맞은편 철골 건물(연면적 9945.35㎡) 등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옛 서진병원 건물로 건물주가 의대 유치를 위해 짓다 자금난 등으로 1992년 공사를 중단한 이래 방치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부동산개발업자가 건물철거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다음달께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토지주가 해당 부지에 대한 재개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마감되면 행정조치를 서두르도록 해당 자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서구 농성동 철골건물은 2007년 공사가 중단된 후 소유권 분쟁 등으로 17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모두 종료 됨에 따라 새단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주가 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검토 후 올



광주시 서구의 한 건축물이 2007년부터 공정이 중단돼 빼대만 앙상히 드러난 채 방치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 상반기에 설계변경 등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주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부도가 나 공사가 10년째 멈춰 있던 남구 주월동 10층짜리 요양병원 건물(연면적 5306.4㎡) 도 올 안으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건물소유자가 자금조달을 통해 공사재개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서구 3선거구)광주시의원이 이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광주지역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자, 광주시는 “광주시는 지역 장기방치건축물이 감소세(7→5→3곳)”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

로 광주시의 강력한 조치를 권고했다.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순한 면담위주의 대책에 그치면 장기 방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의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광주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 건축물은 총 135채에 달한다. 5개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가 50채로 가장 많고, 북구(39채), 남구(26채), 광산구(20채) 순이다. 서구에는 빈 건축물이 없다. 용도별 빈 건축물현황은 51채가 1층 근린생활시설(일상생활 편의 시설로 바닥면적 1000㎡ 이하)이고 2층 근린생활시설(44채·여가,교육,건강 관련 시설로 바닥면적 1000㎡ 이상), 기타(18채), 숙박시설(11채), 창고시설(11채) 순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메이징 그레이스 김

LPGA 에비앙 챔피언십 2차 연장 끝 우승
“이글-칩인버디-이글...다시 하라면 못할 것”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교포 선수 그레이스 김(호주·사진)이 ‘미친 이글’ 덕분에 우승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레이스 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끝난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800만달러)에서 지노 티파꾼(태국)과 2차 연장을 치른 끝에 생애 첫 메이저 정상에 올랐다. 역대 메이저 대회를 통틀어서도 손꼽힐만한 극적인 우승 드라마였다.

그레이스 김은 17번 홀(파4)까지 티파꾼에게 2타 뒤진 공동 3위였지만 18번 홀(파5) 이글로 연장 승부를 끝냈다.

190야드 정도를 남기고 하이브리드 4번 클럽으로 친 두 번째 샷이 홀 거의 바로 옆으로 향한 것이다. 티파꾼이 약 2.5m 버디 퍼트를 넣었다더라면 티파꾼이 1타 차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빛났다.

그레이스 김은 같은 홀에서 진행된 1차 연장에서는 역시 같은 클럽으로 친 두 번째 샷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다.

티파꾼의 우승이 유력해지는 순간 그레이스 김이 1벌타를 받고 드롭한 뒤 러프에서 친 샷이 거저맞처럼 홀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면서 갤러리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잘해야 파를 지킬 수 있었던 상황이 버디가 되면서 오히려 티파꾼이 수세에 몰렸고, 결국 2차 연장에서 그레이스 김이 3.5m 이글 퍼트



를 넣고 승부를 끝냈다.

그레이스 김은 이날 7번 홀(파5)에서도 벅커에서 친 샷이 그대로 이글로 연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행운이 많이 따랐다.

그레이스 김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1차 연장 상황에 꽤 실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칩샷이 들어갔는데,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웃어 보였다.

그는 “오늘 18번 홀 두 번째 샷은 세 번 모두 하이브리드 4번으로 쳤다”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열렬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4곳 선정

국비 2억9천만원 확보...보성·장성·고흥군·나주시 시니어클럽

전남도는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국비 공모사업’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보성·장성·고흥군, 나주시 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이다.

보성군은 인프라 지원 분야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녹차골 청춘식당’을 열고 취약계층 대상 식사 제공 등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성시니어클럽은 초기투자비 지원금 1억원을 토대로 지역 어르신이 조리하는 한식뷔페 ‘어울림밥상’을 창업할 방침이다.

나주시니어클럽은 도시락 배달과 반찬 전문 가

게 ‘엄마의 청춘’ 2호점 개소를 위한 국비 2500만원을 확보했다. 고흥시니어클럽은 도양읍 ‘은빛카페’를 리모델링하고,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분식메뉴를 개발해 ‘은빛카페&분식’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에서는 60세 이상 참여자가 상품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을 맡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전남도가 적극 대응한 결과”라며 “양질의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어르신에게는 안정적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엔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본사인사

- ▲ 김지영 : 편집국 편집부 부장
- ▲ 이보람 : 편집국 예향부 부장
- ▲ 김여울 : 편집국 디지털·체육부장
- ▲ 백성영 : 기획관리국 부장

〈7월 15일자〉

폭염에... 광주시,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제공

8월 한달 환경정화·재활용품 선별

광주시가 폭염에도 폐지를 줌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폐지 수집 어르신을 위해 ‘자원재생활동단’을 8월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자원재생활동단은 노인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도움 주기 위한 대체 일자리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원재생활동단을 올해는 업그레이드해 운영한다. 지난해 폐지 수집을 전면 중단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무더위

시간대 ‘폐지 수집 금지시간’을 운영해 폭염 예방 효과를 늘릴 계획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폐지 수집을 중단한다. 대신, 실내나 그늘에서 환경정화 활동이나 재활용품 선별 등 비교적 안전하고 무리하지 않는 업무를 맡는다.

광주시는 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 600여명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자양모자, 형광모자, 쿨링모자, 쿨타월, 쿨파스, 별레약)도 지급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에 무리하게 거리로 나서지 않게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장성군 공고 제2025-79호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 주민의견청취 공고

서삼면 모암리 산96 일원의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장 성 군 수

-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
 - 목 적 : 장성휴양림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타 주민의견 청취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6 일원
 - 면 적 : 313.356㎡
-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 내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진입도로 및 도로개설 주제 등 도로화비 기준, 주차장 확보 기준 제시
 -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계획
 - 산림휴양지구, 숙박지구, 야영지구, 자연녹지지구
 - 기타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일반사항 등
-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5. 07. 04. ~ 07. 17. (14일간)
나. 열람장소: 장성군 산림편백과 ☎061-390-7394
- 주민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주민열람 공고 시작일 부터 열람기간 만료일 까지
나. 제출방법: 장성군 산림편백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기간 내 서면 제출

※ 금감신청 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동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경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덧발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용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합 병 공 고

2025년 7월 11일 개최한 다음 양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외관광개발 주식회사(“갑”)는 대외유통 주식회사(“을”)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제권자는 본 공고 기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의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의의가 없으면 합병등에 의의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갑” 대외관광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362-70 대표이사 이 현 경, 이 강 명
“을” 대외유통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3길 52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 강 명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제출 공고)

성우이앤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국일이앤지(이하 “을”이라 함)는 각각 2025년 07월 14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병 제5303호42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영입)의 일부인 전기공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사업의 재산부채등 “갑”의 전기공사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여 합병제 5303호42 제3항의 의거 분할된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제권자는 이 공고 기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의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사가 바라며, 의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1. 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사업 (광주-000973호)
“갑” 성우이앤지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동수길 89 대표이사 이광 제
“을” 주식회사 국일이앤지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동수길 89 대표이사 최은 주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영 산 571-7656 • 오 치 266-76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936 • 동 광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광 222-9054 • 중 광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9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936 • 중 부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은 천 376-7153 • 치 월 376-6511 • 봉 앞 603-0311 • 화 청 369-1625
광 산 구	• 은 남 952-1687 • 백 국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